

목회력 향상훈련이 신학생의 의사소통과 자아실현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a P.E.T. training group on theology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self-actualization

이수용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결과
 - V. 논의
 - VI.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T. program on the theology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self-actualiz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 Kosin theology college students who comprised of Two groups. After executing the P.E.T. training for this subjects, I compared the result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est and self-actualization test with means of pre-post test. And by observing differences between pre-test score and post-test score, I verified the hypothesis that the P.E.T training will have positive effectiveness on student'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self-actualization.

Following conclusion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level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f those who have received P.E.T. training was improved($P<.01$). Therefore, the P.E.T. training is effective for improvement of the theology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 The level of self-actualization of those who have received the P.E.T. training was improved($P<.01$). Therefore, the P.E.T. training is effective for betterment of the theology college student's self-actualization.

3. In ten sub-scales of the self- actualization test, Existentiality score, Feeling reactivity score, Self regard score, Self acceptance score and Nature of man, constructive score were conspicuously gone up($P<.01$) for weekly group more than marathon group. Therefore, the P.E.T. training is effective for improvement of the weekly group more than marathon group.

* 이 논문은 94학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회 조직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화 추세로 대변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 변화는 교회 구성원에게도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욕구의 분출, 자기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 조직의 위계상의 혼돈도 경험할 수 있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교회 구성원들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물론이고 이 분야에 실증적 연구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목회자는 인간관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사람을 관대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하며, 동시에 다른 교우들의 생각을 잘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어떠한 갈등 과제도 잘 처리해야만 교인들에게 신앙의 높은 실행 의욕을 고취시킬 수가 있다. 또한 목회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실행을 통해서 교우들의 신앙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 양성 교육을 받는 신학생들에게 신학지식의 학습과 더불어 목회자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인간관계 훈련을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최근 상담심리 분야에서는 개인상담을 실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집단상담 훈련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집단상담 훈련의 관심과 인기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집단상담이 개인상담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의 내담자들과 동시에 상담을 하면서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의 지지와 압력, 담당 시간의 공유, 다양한 학습경험 등을 통하여 집단원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형득, 1979). 이러한 집단상담을 목회자 후보생에게 적용함으로써

일반 상담자와 달리 신학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가진 그들에게 목회현장의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교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상담자 Adams(1981)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성령의 사역을 끌어들이는 것은 성령의 지시와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담은 인간의 자율성에다 기초를 두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자신이 받은 교육 및 신념에 따라 교인의 문제를 교훈적인 말이나 성경을 인용하여 지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로 인하여 종교적 용어나 신학 이론을 펴기 좋아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며 내담자가 지닌 문제의 사회 심리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고 만다(이장호, 1982).

목회자가 목회상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목사 후보생들에게 상담에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시켜야 한다. 상담 훈련에서 의사소통 기술의 훈련모형을 주장한 Carkhuff와 그의 동료들(1965)은 “모든 효과적인 인간관계 과정에는 인간관계 경험의 촉진에 도움이 되는 중핵적인 요소 혹은 조건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기존의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들을 분석하여 8가지 요소를 주장했다. 즉 (1) 공감 (2) 존중 (3) 온정 (4) 구체성 (5) 진실성 (6) 자기노출 (7) 맞닥뜨림 (8) 즉시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Gray & Tindall(1978)은 동료상담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이 모형에는 (1) 관심 기울이기 (2) 공감하기 (3) 요약하기 (4) 질문하기 (5) 진실성 (6) 맞닥뜨림 (7) 문제해결의 7가지 요소를 의사소통 기술로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주장과 달리 Thomas Gordon(1975)은 지도자 효율성 훈련에서 (1)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2) 나 - 메시지(I - message) (3) 무패적 방법(No - lose method)을 의사소통의 핵심기술로 훈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Gordon의 훈련 프로그램은 Carkhuff 등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과 상이하да기보다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homas Gordon의 지도자 효율성 훈

련(Leader Effectiveness Training)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한국 실정에 맞게 신학생을 위한 목회력 향상훈련(Pastoral Effectiveness Training)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목회자의 자질 향상훈련에 적극 활용하고 목회상담학의 실체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의 방향 탐색과 기법 개발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 1)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원리와 기법의 체득이 유용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 2) 이 훈련을 통해 목회자의 목회상담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그들이 소명의식에 입각한 자아실현적 목회자로서 긍정적인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지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3) 또한 목회력 향상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확인해 보고
- 4) 이 프로그램이 목회상담 훈련에 일반화가 가능한가를 검증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가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목회력 향상훈련을 받은 신학생들은 의사소통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 가설 2. 목회력 향상훈련을 받은 신학생들은 자아실현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 가설 3. 목회력 향상 프로그램은 집중적 훈련보다 분산적 훈련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1) 목회력 향상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기법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검사 점수가 목회력 향상과 직결된다고 가정하였다.

2) 목회력 향상훈련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연구추진 일정 때문에 이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3) 목회상담에서 하나님의 조력과 관여하심이 중요하지만 본 훈련 특성상 영성 부분은 제외하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실제적인 상담기법 중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만 국한하였다.

5. 용어의 정의

1) 목회력 향상 훈련(Pastoral Effectiveness Training - P.E.T.)

Thomas Gordon(1975)은 효율적인 지도자는 자신과 상대방의 상호욕구를 충족시키고 참여의 원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집단 구성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경청하는 방법'과, 집단 구성원이 지도자의 특별한 욕구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거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기술인 '나 - 메시지', '무패적 방법'을 잘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담 전문가와 임상 전문가, 목회자들이나 산업체 지도자들에게 이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을 지도력 효율성 훈련이라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제외한 각종 신앙 지도에 지도자나 목회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필요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원리와 기법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회력 향상훈련(P.E.T.)이라 정의한다.

2)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란 상담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하지만 본 연

구에서의 의사소통은 ①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② 나 - 메시지(I - message) ③ 무패적 방법(No - lose method)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목회상담이란?

목회상담이란 목회의 한 기능으로서 교역자와 교우간에 인격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 짐을 저 주며 화해를 성취해 나가는 목회이다. 이 때 내담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동안 수평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질문들, 예컨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의 문제, 모든 인간의 죄책과 실존적인 불안에서의 해방 등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화해를 통해 수평적인 지탱, 격려, 관계, 돌봄과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교제, 화해로 내담자를 이끌어 줄 때 내담자에게 진정한 전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및 수직적 차원의 실천에서 상담을 목회상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오성춘, 1987).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 영생을 얻는 것(요 3:18)과, 풍성한 삶(요 10:10)을 누리는 것, 짐진 자를 쉬게 함(마 11:28)에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목회상담의 정의와 제 이론적 접근, 목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목회상담의 정의

목회상담을 논하기 위하여 일반 상담의 정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Clifford E. Erickson(1949)은 상담이란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돕고 또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돕는 과정”이라고 했으며 Downing(1968)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과 관계이다.”라고 했고 Williamson

(1949)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전문가에 의해서 해결을 받는 면대면(面對面)의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문제를 가진 내담자, 해결을 돕는 전문가,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그것을 풀 수 있게 하는 면대면(面對面)의 마음 문을 열어놓는 관계가 주요 요소이다.

목회상담에 이러한 요소를 준거로 하여 살펴보면 정의를 도출할 수가 있겠다. 유형십(1981)은 목회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말하는 복음의 설교이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말씀 안내의 노력에 초점을 두는 정의를 내렸다. 반피득(1981)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그의 숨은 가능성을 개발시켜 주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다.”라고 하여 가능성을 성장 발달시키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병원(1992)은 “인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즉 문제 해결을 원하는 개인이 그 문제의 해결을 얻게 하고, 성령의 사역에 의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세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의 성장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상담의 인격적 관계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과 인격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S. Hiltner(1979)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내적 갈등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사의 시도이다.”라고 정의하여 문제 각성과 자력 해결을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W. B. Oglesby(1980)는 “목회상담은 목회의 한 기능으로서 목회자와 교우, 교우와 교우 간에 격의 없이 당면 문제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지지해 주고, 사랑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어,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자가 자신의 자원을 다시 모아서 지속적인 삶의 과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목회이다. 따라서 목회상담이란 의미 있는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적인 삶 속에 빠져서 특별한 도움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는 목회의 한 기능이다”라고 하여 격이 없는 의사소통과 사랑의 만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Jay E. Adams(1970)는 “목회상담이란 성경을 그 도구로 합과 성령의 중재케 하는 사역이다.”라고

하여 오로지 성경과 성령의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목회상담이란 전문훈련을 받은 목회상담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문제를 가진 내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수용하여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대신(對神)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수평적인 대인(對人)관계를 성숙하게 맺도록 그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의사소통을 통한 면대면(面對面)의 조력 과정이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2) 목회상담의 제 이론적 접근

① 예언자적 접근(통찰지향요법)

예언자적 목회상담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죄를 책망하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교역활동으로 목회상담을 생각하는 접근으로, Jay E. Adams의 권면적 상담과 Lawrence J. Crabb의 성경적 상담 등이 있다. 이들은 이 접근만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여 상담은 전도와 권면, 깨우침과 행동교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접근은 상담이론의 지시적 방법에 속한다.

② 제사장적 접근(관계지향요법)

제사장적이라 할 때에는 죄를 짓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그들의 심정을 공감하여 들어 주며,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하여 제사하는 위로의 교역 활동을 목회상담으로 생각한다. William E. Hulme, Rollo May, Seward Hiltner, Gary Collins 등은 성경말씀이 책망과 권면을 위해서 사용될 때 도리어 심령에 억압작용만 할 뿐이며 오히려 용서와 화해와 위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상담의 예언자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이 접근은 상담이론의 비지시적 방법에 속한다.

③ 전인 성장적 접근(성장지향요법)

전인 성장적 접근은 인간의 몸과 정신과 혼의 통합적인 전인 건강을 강화하는 것이 목회상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인의 치료보다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의 성장에 상담의 역점을 두는 것을 강조한다. Howard Clinebell의 성장상담을 들 수 있는데, 이 접근은 심리적이고 대인관계적인 치유와 성장을 인간 생활의 확대 구조와 조직체 안에서의 건설적인 변화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접근은 목회의 다른 기능인 설교, 예배인도, 교회운영, 교육, 소그룹관리, 지역사회봉사, 그리고 조직체가 보다 성장 지향적이 되도록 돕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접근은 상담이론의 성장 촉진적 방법에 속한다.

3) 목회상담의 목표

목회상담은 전인적인 인격형성과 영적건강을 그 목표로 삼는다. Howard O. Clinebell(1987)은 인간경험에는 6가지 차원이 있으며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에 중대한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몸, 정신,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회구조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등이 모두 목회상담의 목표의 차원이 된다.

F. A. Schaeffer(1968)는 목회상담을 사전전도(pre-evangelism)의 일종으로 불신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복음전도와 제자화하는 기독교 상담자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연관된 목표들이다. 이런 것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목회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신앙적 (1) 자기이해 (2) 의사소통 (3) 학습과 행동변화 (4) 자아실현 (5) 심적 지지 등을 목표로 삼는다.

4) 목회상담의 특징

W. E. Oates(1974)는 목회상담의 특징을 8가지로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목회상담은 피상담자와 상담자 외에 하나님과의 상담이며 관계이다.

둘째, 목회상담은 목사(상담자)와 교인(피상담자)의 상담관계 속에 하나가 모두를 돕고 있다는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셋째, 목회상담은 신앙 안에서의 대화(의사소통)이다.

넷째, 목회상담은 특별히 훈련받은 목회자가 상담자가 된다.

다섯째, 목회상담은 교회라는 특수한 배경을 갖고 있다.

여섯째, 목회상담은 예언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일곱째, 목회상담은 윤리적이다.

여덟째, 목회상담은 축복을 선포하는 상담이다.

여기서 교회 내에서 관계성과 대화의 중요성을 볼 수 있고 특별한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목회상담자 훈련

1) 목회상담자의 의사소통 훈련

목회상담에서 의사소통 훈련은 목사들의 사역의 비상담적 측면들에서도 그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돕는 기술들은 근본적으로 성장 자극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관계를 맺는 기술이다. 목사의 복잡한 사역의 모든 단면은 그 핵심에 있어서 관계들 및 의사전달 요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 사역은 상담 훈련을 통하여 획득된 감수성과 기술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박근원, 1987). 목회자의 의사소통 훈련은 그들의 대화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므로 곧 목회 지도력을 향상시켜 주게 된다.

2) 목회상담자의 상담기법 훈련

최근 상담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상담기술들이 무엇인지 발견되고 있다. Robert R. Carkhuff(1979)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차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체계적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 외에도 Gerald Egan(1975)과 Allen E. Ivey(1978) 등이 상담기술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오늘날 신학교에서 목회상담자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야할 지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한 상담자가 훈련해야 할 필수적

인 상담의 조력 기술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의집중과 관심 기울이는 행위
- (2) 유용한 질문법과 말문 여는 반응
- (3) 적극적 경청과 비언어 관찰법
- (4) 공감적 이해와 반응
- (5) 요약하기와 명료화 해주기
- (6) 공감 속에 직면하기 등이다.

이것을 더욱 축소한 Thomas Gordon(1975)의 주장은 관심 기울이기와 질문법이 포함된 ‘적극적 경청’, 공감적 이해와 요약 및 명료화하기가 포함된 ‘나 - 메시지’, 이것을 잘 활용하는 직면까지 포함된 ‘무패적 방법’의 3가지로 압축된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 효율성 훈련(L.E.T.)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목회상담자의 핵심기술을 훈련시킨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연구자가 교류교수로 재직한 고신 대학의 신학과 4학년 학생 36명이다.

1) 분산집단(weekly group)

매주 2시간씩 분산하여 한 학기 동안 20시간을 훈련한 19명 중 6시간 이상 참석치 못한 4명을 제외하고 15명을 최종 분산집단 훈련 대상으로 하였다.

2) 집중집단(marathon group)

집중적으로 모여서 10시간씩 2회에 걸쳐 실시하여 20시간을 훈련한 17명 중에 6시간 이상 불참한 2명을 제외하고 15명을 최종 집중집단 훈련 대상으로 하였다.

2. P.E.T. 프로그램

Thomas Godon의 저서 「지도자 효율성 훈련」(Leader Effectiveness Training: L.E.T.)을 이형득 외 3인이 공역한 것을 목회상담자의 지도능력 향상훈련에 그 원리를 취하여 목회현장에 실제와 사례를 중심으로 Workbook을 만들어 P.E.T. 과정 목적과 의사소통의 공리를 1주에 2시간 훈련시켰다. 그리고 문제의 소재 파악 훈련을 2주에 4시간 훈련시켰다. 교인이 문제를 가졌을 때 사용할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훈련에 2주 동안 4시간, 목회상담자 자신이 문제를 소유했을 때 사용할 나메시지(I - Message) 훈련을 2주에 4시간 가졌고, 교인과 목회상담자가 함께 문제를 가져 갈등을 겪을 때 사용할 무패적 방법(No - Lose Method) 훈련을 3주에 6시간 시켰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프로그램을 분산 집단은 매주 2시간씩 10주에 걸쳐 프로그램을 훈련하였고 집중집단은 5주째에 10시간 10주째에 10시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였다. 매시간 진행 순서는 (1) 이론을 강의하고 (2) workbook에 실제로 집필 반응을 한 후에 (3) 집단 앞에 나와서 실제 내용이나 자신의 경우를 적용하여 두 사람씩 짝지어 역할놀이(role play)를 해서 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체득시키고 (4) 토의 및 질의를 통하여 이론과 실재를 정리하게 하였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신학생용 대인간의 의사소통 척도(Millard & Bienvenu, 1972)와 자아실현 검사(김재은, 이광자, 1977)이다.

1) 대인간 의사소통 척도

신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J. Millard & S.R. Bienvenu (1972)가 개발한 대인간(對人間) 의사소통 척도(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I.C.I.)를 신학생 및 목회자용으로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은 자아개념(Self Concept), 경청(Listening), 표현 명료성(Clarity of Expression), 감정처리(Coping with Angry Feelings), 자기 노출(Self Disclosure) 등으로 하위요인 간에 구분없이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대인간 의사소통 척도의 문항별 판정기준

문 항	판 정			문 항	판 정			문 항	판 정		
번호	예	아니오	가끔	번호	예	아니오	가끔	번호	예	아니오	가끔
1	3	0	2	15	3	0	2	28	0	3	1
2	3	0	2	16	0	3	1	29	3	0	2
3	0	3	1	17	0	3	1	30	0	3	1
4	0	3	1	18	0	3	1	31	3	0	2
5	3	0	2	19	3	0	2	32	3	0	2
6	0	3	1	20	3	0	2	33	0	3	1
7	3	0	2	21	0	3	1	34	0	3	1
8	0	3	1	22	0	3	1	35	3	0	2
9	3	0	2	23	3	0	2	36	3	0	2
10	0	3	1	24	0	3	1	37	0	3	1
11	3	0	2	25	0	3	1	38	3	0	2
12	3	0	2	26	3	0	2	39	0	3	1
13	0	3	1	27	0	3	1	40	3	0	2
14	3	0	2								

신학생의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 간 반응에 있어서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보통 정도로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예”에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거의 혹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오”에 반응하도록 하였고, 어느 쪽으로도 측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가끔”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채점은 <표 1>과 같이 척도 제작자의 문항별 판정기준에 의존하여 개인별 전체 반응 득점을 계산하였다.

2) 자아실현검사

자아실현 검사는 Shostrom(1977)이 제작한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를 김재은, 이광자가 우리 나라 수준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

4. 자료 처리

두 가지 종류의 실험집단에게 실시한 대인간 의사소통 척도와 자아실현 검사에 의한 실험전 사전검사와 실험후 사후검사의 득점 차를 산출하여 두 집단의 전후차 간의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IV.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목회력 향상훈련 전(前)과 후(後)에 실시한 신학생의 대인간 의사소통 척도 및 자아실현 척도에 의한 검사에서 2개의 실험집단인 분산집단과 집중집단의 득점을 전후차로 산출하여 두 집단의 전후 차이를 증명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설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의 변화

1) 의사소통 점수에 미치는 효과

가설 1. 목회력 향상훈련을 받은 신학생들은 의사소통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목회력 향상훈련 전후에 실시한 분산집단과 집중집단 신학생의 대인간 의사소통 수준의 전후차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고 차이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의사소통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의사소통 척도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별	분산집단	집중집단	전체
검사시기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전검사	78.33(5.67)	85.20(7.28)	81.76(6.47)
사후검사	90.60(3.71)	96.06(7.68)	93.33(5.42)

의사소통 척도의 득점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의사소통 점수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값
피험자간 집단(A)	570.42	1	570.42	9.49**
오 차	1682.93	28	60.10	
피험자내 검사시기(B)	2006.82	1	2006.82	105.75**
집단×검사시기(A×B)	7.35	1	7.35	.39
오 차	531.33	28	18.98	
전 체	4798.85	59	2663.67	

<표 3>을 보면 두 훈련집단의 사전, 사후의 의사소통 득점은 검사시기 변인에서 $F=105.75$ $P<.01$ 수준에서 훈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 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전 득점 평균은 81.76으로 나타났고 사후 득점의 평균은 93.3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 유형에 관계없이 목회력 향상훈련은 의사소통성 향상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2. 자아실현의 변화

1) 자아실현 점수에 미치는 효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목회력 향상 훈련의 전후에 실시한 분산집단과 집중집단 신학생의 자아실현 수준의 전후차에 대한 하위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 6, 8, 10, 12, 14, 16, 18, 20, 22>이고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5, 7, 9, 11, 13, 15, 17, 19, 21, 23>과 같다.

자아실현검사의 하위척도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재지향성

자아실현성 검사의 현재지향성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현재지향성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별	분산집단	집중집단	전체
검사시기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전검사	55.13(7.43)	55.26(5.75)	55.19(6.59)
사후검사	68.46(7.65)	68.06(7.53)	68.26(7.59)

현재지향성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현재지향성 점수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값
피험자간 집단(A)	.27	1	.27	.00
오 차	2292.47	28	81.87	
피험자내 검사시기(B)	2561.07	1	2561.07	128.31**
집단×검사시기(A×B)	1.07	1	1.07	.05
오 차	558.87	28	19.96	
전 체	5413.75	59	2664.24	

<표 5>를 보면 두 훈련집단의 사전, 사후의 현재지향성 득점은 검사시기 변인에서 $F=128.31$ $P<.01$ 수준에서 훈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 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전득점 평균은 55.19로 나타났고 사후득점의 평균은 68.0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유형에 관계없이 목회력 향상훈련은 현재지향성 향상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인 현재지향성에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② 내부지향성

내부지향성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내부지향성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별	분산집단	집중집단	전체
검사시기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전검사	47.53(8.81)	54.26(6.18)	50.89(7.49)
사후검사	61.66(7.65)	62.73(9.66)	62.19(8.65)

내부지향성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내부지향성 점수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값
피험자간 집단(A)	228.15	1	228.15	2.29
오 차	2784.20	28	99.44	
피험자내 검사시기(B)	1915.35	1	1915.35	55.36**
집단×검사시기(A×B)	120.42	1	120.42	3.48
오 차	968.73	28	34.60	
전 체	6016.85	59	2397.96	

<표 7>을 보면 두 훈련집단의 사전, 사후의 내부지향성 득점은 검사시기 변인에서 $F=55.36$ $P<.01$ 수준에서 훈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 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전 득점 평균은 50.89로 나타났고 사후 득점의 평균은 62.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유형에 관계없이 목회력 향상훈련은 내부지향성 향상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인 내부지향성에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③ 자아실현성

자아실현성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자아실현성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별	분산집단	집중집단	전체
검사시기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전검사	48.00(8.61)	53.40(5.32)	50.70(6.96)
사후검사	60.06(6.56)	60.53(7.14)	60.29(6.85)

자아실현성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자아실현성 점수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값
피험자간 집단(A)	129.07	1	129.07	1.77
오 차	2038.93	28	72..82	
피험자내 검사시기(B)	1382.40	1	1382.40	54.11***
집단×검사시기(A×B)	91.27	1	91.27	3.57
오 차	2038.93	28	72.82	
전 체	5680.60	59	504.38	

<표 9>를 보면 두 훈련집단의 사전,사후의 자아실현성 득점은 검사시기 변인에서 $F=54.11$ $P<.001$ 수준에서 훈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 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전득점 평균은 50.70으로 나타났고 사후득점의 평균은 60.2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유형에 관계없이 목회력 향상훈련은 자아실현성 향상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인 자아실현성에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④ 실존성

실존성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실존성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별	분산집단	집중집단	전 체
검사시기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전검사	44.40(9.03)	51.80(4.22)	48.10(6.62)
사후검사	58.06(8.57)	58.06(8.09)	58.06(8.33)

실존성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실존성 점수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값
피험자간 집단(A)	205.35	1	205.35	2.19
오 차	2624.73	28	93.74	
피험자내 검사시기(B)	1490.02	1	1490.02	58.50***
집단×검사시기(A×B)	205.35	1	205.35	8.06**
오 차	713.13	28	25.47	
전 체	5238.58	59	2019.93	

<표 11>을 보면 두 훈련집단의 사전, 사후의 실존성 득점은 검사시기 변인에서 $F=58.50$ $P<.001$ 수준에서 훈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 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전득점 평균은 48.10으로 나타났고 사후득점의 평균은 58.0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유형에 관계없이 목회력 향상훈련은 실존성 향상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인 실존성에서 <가설 2> <가설 3>이 채택되었다.

⑤ 감수성

감수성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감수성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별	분산집단	집중집단	전 체
검사시기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전검사	45.06(11.29)	53.20(3.87)	49.13(7.58)
사후검사	61.53(8.01)	59.53(7.32)	60.53(7.66)

감수성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감수성 점수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값
피험자간 집단(A)	141.07	1	141.07	1.59
오 차	2482.40	28	88.65	
피험자내 검사시기(B)	1949.40	1	1949.40	46.79***
집단×검사시기(A×B)	385.07	1	385.07	9.24**
오 차	1166.53	28	41.66	
전 체	6124.34	59	2605.85	

<표 13>을 보면 두 훈련집단의 사전, 사후의 감수성 득점은 검사시기 변인에서 $F=46.79$ $P<.001$ 수준에서 훈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 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전득점 평균은 49.13으로 나타났고 사후득점의 평균은 60.5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유형에 관계없이 목회력 향상훈련은 감수성 향상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인 감수성에서 <가설 2> <가설 3>이 채택되었다.

⑥ 자발성

자발성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자발성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별	분산집단	집중집단	전 체
검사시기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전검사	52.06(6.61)	56.26(7.34)	54.16(6.97)
사후검사	62.86(7.99)	61.46(9.79)	62.16(8.89)

자발성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자발성 점수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값
피험자간 집단(A)	20.40	1	29.40	.40
오 차	2073.93	28	74.07	
피험자내 검사시기(B)	960.00	1	960.00	17.53***
집단×검사시기(A×B)	117.60	1	117.60	2.15
오 차	1533.40	28	54.76	
전 체	4714.33	59	1235.83	

<표 15>를 보면 두 훈련집단의 사전, 사후의 자발성 득점은 검사시기 변인에서 $F=17.53$ $P<.001$ 수준에서 훈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 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전득점 평균은 54.16으로 나타났고 사후득점의 평균은 62.1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유형에 관계없이 목회력 향상훈련은 자발성 향상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인 자발성에서 <가설 2>은 채택되었다.

⑦ 자기긍정성

자기긍정성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자기긍정성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별	분산집단	집중집단	전 체
검사시기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전검사	47.86(8.31)	56.00(5.61)	51.93(6.96)
사후검사	64.00(7.72)	61.60(9.19)	62.80(8.45)

자기긍정성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자기긍정성 점수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값
피험자간 집단(A)	123.27	1	123.27	2.41
오 차	1434.67	28	51.24	
피험자내 검사시기(B)	1771.27	1	1771.27	24.86***
집단×검사시기(A×B)	416.07	1	416.07	5.84*
오 차	1994.67	28	71.24	
전 체	5739.95	59	2433.09	

<표 17>을 보면 두 훈련집단의 사전, 사후의 자기긍정성 득점은 검사시기 변인에서 $F=24.86$ $P<.001$ 수준에서 훈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 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전득점 평균은 51.93으로 나타났고 사후득점의 평균은 62.8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유형에 관계없이 목회력 향상훈련은 자기긍정성 향상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인 자기긍정성에서<가설 2> <가설 3>이 채택되었다.

⑧ 자기수용성

자기수용성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자기수용성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별	분산집단	집중집단	전 체
검사시기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전검사	50.73(9.59)	58.86(5.69)	54.79(7.64)
사후검사	64.13(7.97)	62.60(7.97)	63.36(7.97)

자기수용성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19> 자기수용성 점수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값
피험자간 집단(A)	163.35	1	163.35	1.99
오 차	2296.73	28	82.03	
피험자내 검사시기(B)	1100.82	1	1100.82	25.16***
집단×검사시기(A×B)	350.42	1	350.42	8.01**
오 차	1225.27	28	43.76	
전 체	5136.59	59	1740.38	

<표 19>을 보면 두 훈련집단의 사전, 사후의 자기수용성 득점은 검사시기 변인에서 $F=25.16$ $P<.001$ 수준에서 훈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 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전득점 평균은 54.79로 나타났고 사후득점의 평균은 63.3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유형에 관계없이 목회력 향상훈련은 자기수용성 향상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인 자기수용성에서 <가설 2>, <가설 3>이 채택되었다.

⑨ 인간관

인간관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표 20> 인간관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별	분산집단	집중집단	전 체
검사시기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전검사	39.33(12.79)	51.86(8.56)	45.59(10.67)
사후검사	59.53(7.02)	54.13(10.93)	56.83(8.97)

인간관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인간관 점수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값
피험자간 집단(A)	190.82	1	190.82	1.69
오 차	3163.87	28	113.00	
피험자내 검사시기(B)	1892.82	1	1892.82	21.03***
집단×검사시기(A×B)	1206.02	1	1206.02	13.40**
오 차	2520.67	28	90.02	
전 체	8974.20	59	3492.68	

<표 21>을 보면 두 훈련집단의 사전, 사후의 인간관 득점은 검사시기 변인에서 $F=21.03$ $P<.001$ 수준에서 훈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 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전득점 평균은 45.59로 나타났고 사후득점의 평균은 56.8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유형에 관계없이 묵회력 향상훈련은 인간관 향상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인 인간관에서 <가설 2> <가설 3>이 채택되었다.

⑩ 포용성

포용성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포용성의 집단별 득점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별	분산집단	집중집단	전 체
검사시기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전검사	47.80(11.04)	56.46(7.09)	52.13(9.06)
사후검사	58.86(7.22)	60.60(8.18)	59.73(7.70)

포용성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포용성 점수의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값
피험자간 집단(A)	405.60	1	405.60	3.42
오 차	3323.13	28	118.68	
피험자내 검사시기(B)	866.40	1	866.40	32.16***
집단×검사시기(A×B)	180.27	1	180.27	6.69*
오 차	754.33	28	26.94	
전 체	5529.73	59	1597.89	

<표 23>을 보면 두 훈련집단의 사전, 사후의 포용성 득점은 검사시기 변인에서 $F=32.16$ $P<.001$ 수준에서 훈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 득점을 비교해 본 결과 사전득점 평균은 52.13으로 나타났고 사후득점의 평균은 59.7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유형에 관계없이 목회력 향상훈련은 포용성 향상에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검사 하위척도인 포용성에서 <가설 2> <가설 3>이 채택되었다.

V. 논의

본 연구는 기존 목회상담의 개인성장적 측면과 대인관계 훈련의 의사소통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에 의해 T. Gordon의 효율성 원리를 재구성하여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력 향상훈련을 실시하였다. 목회자의 바람직한 목회력을 위한 대인간의 의사소통 수준과 성직에 대한 사명의 자아실현적 경향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선행 연구들과 관련지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목회력 향상 훈련이 신학생들의 대인간 의사소통수준의 변화가 훈련 받기 전보다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승함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 경청, 표현의 명료성, 감정처리, 자기노출 등의 하위요인들이 구분없이 전체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대인간 의사소통 수준 검사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이 훈련에 참가자들이 전통적인 대화의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자각하고 바람직한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은 결과는 P.E.T. 훈련을 일반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여 그들의 대화 형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한 김진숙, 연미희(1991), 최강희(1993)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오스트리아의 부모들이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지식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한 Hwtrick(1979)와 Hughson(1980) 등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한편 Rinn & Markle(1977)의 결과와는 불일치 한다. 여기에서 불일치의 원인은 실험설계가 문제되며 훈련시간의 짧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목회력 향상 훈련이 신학생들의 자아실현수준의 변화가 훈련받기 전보다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승함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에서 현재지향성과 내부지향성만 1% 수준에 유의했고 나머지 자아실현성, 실존성, 감수성, 자발성,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인간관, 포용성 등은 0.1% 수준에서도 대단히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ulbert, Clark & Bobele(1968)과 Reddy(1972), Rappaport(1973)가 각각 대학생 집단에게 소집단 훈련을 실시한 결과 내부지향성, 자발성 그리고 포용성이 공통적으로 의미있게 변화하였다고 보고했는데 본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소집단 훈련이 훈련의 결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아실현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목회자들의 목회

력 향상과 소명에 대한 강화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한편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훈련시간 배치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분산집단이 집중적 집단보다 자아실현 검사의 하위변인 실존성, 감수성, 자기 긍정성, 자기수용성, 인간관계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결과는 White(1974)과 설기문(1981)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Jones & Medvene(1975)가 실시한 12시간의 집중적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자아실현과 관련하여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보고와는 불일치하였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연구와는 불일치의 이유는 납득이 가는 점이 있다. Kinball & Gelso(1974)의 제안에 따르면 집단상담이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15시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긍정적 결과는 20시간의 훈련 결과로 사료된다.

VI. 결론

본 연구는 목회력 향상 훈련이 신학생의 의사소통과 자아실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대인간 의사소통 척도와 자아실현 검사를 훈련을 사전, 사후 검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또 거기서 얻은 득점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를 알아봄으로써 목회력 향상훈련 프로그램이 신학생에게 의사소통과 자아실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이상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비교 고찰해 봄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목회력 향상훈련을 받은 신학생들은 의사소통 수준이 향상되었다.
2. 목회력 향상 훈련을 받은 신학생들은 자아실현 수준이 향상되었다.

3. 목회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은 신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으며 집중적 훈련보다 매주 실시하는 분산적 훈련이 더 효과적이었다.

참고문헌

- 김병원, “목회상담에 있어서 성경적 방법론 연구”, 「고신대학원 논문집」(부산 1992).
- 김재은, 이광자, 「자아실현검사 실시요강」(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 김진숙, 연미희, “P.E.T. Program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화 형태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논문」 제8집(1991).
- 박근원, 「목회상담신론」(서울: 예장 총회출판국, 1987).
- 반피득, 「목회상담 개론」(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1).
- 설기문,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대학원 석사 논문」(1981).
- 오성춘, 「목회상담 사례분석」(서울: 예장 총회 출판국, 1991).
- 유형심, 「목회심리학」(서울: 한국 기독교 문화연구소, 1981).
- 이수용, 「목회력 향상훈련」(대구: 도서출판 영남서원, 1994).
- 이수용,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지도상담」 제7집(1982).
-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서울: 박영사, 1994).
- 이형득, 「인간관계훈련의 실제」(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79).
- 최강희 “소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의사소통수준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1993).
- Adams, J. E., *Competnt to Counsel*(Nutl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0).
- Carkhuff & Bank, G., “Traning as appropriated mode of facilitating Relations between races and gene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iogy(1968).

Carkhuff, R. R., "Helping and human Relations: A primer for lay and professional helpers", *Selection and training* Vol. 1(NY: Holt, Rinehart & Winston, 1969).

Clinebell H.,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CA, Abingdon Press, 1989).

Collins, G. R., *A Psychochologist looks at Life*(Wheaton, IL: Key Pub., 1971).

Crabb S. J.,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Grands Rapids(Michigan : Zondervan, 1975).

Culbert, J. M., Clark, J. A. & Bobele, H. Y., "Measures of change toward self-actulization in two sensitivity grou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1970).

Downing, L. N., *Guidence and Counseling Services in Introduction*(NY: McGraw-Hill Book Co., 1968).

Egan, G., 오성춘 역, 「상담의 실제」(*The Skilled Helper*, 서울: 예장., 총회출판국, 1991).

Erickson, C. E., *A Practical Handbook for School Counselors*(NY: McGraw-Hill Book Co., 1968).

Gordon 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NY: Peter H. Wyden, 1979).

-----, *Lerder Effectiveness Traing*(NY: Peter H. Wyden, 1970).

Gray, H. D. & Tindall, J. A., *Peer counseling: An in-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Mass. Muncie, Indiana: Accelerated Development Inc., 1978).

Hiltiner S., *Pastoral sounseling*, NY: Abingdon Press, 1949).

Hughson, B., "An evaluation study of the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rogram", *Swinburne Institute of Technology*(Australia: Thesis, 1980).

Hulme, W. 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Minneapolis: Augsburg Press,

1981).

- Hwtrick, E. W., "Trainging parents of learning children in faciliative communcation skills", *Journal of Learing Disabilities*, 12(4)(1979).
- Ivey A. E., "Microcounseling and attending behavior: An approach to preparation counselor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1968).
- Jones, D. S. & Mrdvene, "A. M., Self-actulization effects of a marathon Growth Grou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1975).
- Kinball, R. & Gelso, C. J., "Self-actualization in a marathon Group: Do the strong Get strong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1974).
- May Rollo, 이봉우 역, *The Art of Counseling*(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75).
- Millard, J. & S. R. Bienvenu, S. R., "Interpersonal Coummunication Inventory", *The 1974 A anual Hanel Book for Group Facilitators*(Sandiego CA: University Associates Pub. INC., 1974).
- Oates W. E.,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Grand Rapids: Baker's Book House, 1961).
- Oglesby W. B., *Biblical Themes for Pastoral Care*(Nashville: Abingdon Press, 1980).
- Rappaport, J. & Gross, T. & Laper, C., "Modeling, Sensitivity Training and instruc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1973).
- Rinn, R. C. & Markle, A.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 A Review", *Psychological Report*, 41(1977), pp. 94-109.
- Ruddy, W. B., *The impact of sensitivity training on self actualization: a one year follow-up*(Small group Behavior, 1973).
- Schaeffer F. A., *The Good Who is There*(Chicago: Inter-Varsity, 1968).
- Shostrom,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Institute of Therapeutic Psychology, 1963).
- White, J., "The human potential Laboratory in the community college", *Journa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1974).

목회력향상훈련이 신학생의 의사소통과 자아실현에 미치는 효과 / 이수용

Williamson, E. G., *Counseling & Discipline*(NY: McGraw-Hill Book Co., 1949).



■ 이수용 ■

계명대, 동대학원에서 교육심리(문학석사), 상담심리(교육학 박사) 전공, 한국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 전문가(44호), 현 한국발달상담학회 회장, 계명전문대 교수, 고신대 초빙교류교수. 저서 및 역서는 「인간 이해」, 「상담의 이론적 접근」, 「자율적 인간 육성의 원리」, 「부모교육」, 「자신감을 찾는 비결」, 「목회력 향상훈련」 등이 있음